

『영미연구』

제60집 (2024): 61-88

<http://doi.org/10.25093/ibas.2024.60.61>

# 제국의 역습: 「라이지아」에 나타난 포의 미국 흡혈 제국주의 비판

장기윤

단독 / 서강대학교

## [국문초록]

에드거 앨런 포의 「라이지아」는 D. H. 로렌스가 『미국 고전 문학 연구』에서 ‘흡혈귀 이야기’로 지정한 이래 포의 대표적인 고딕 소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은 로렌스의 영향으로 화자와 라이지아만을 흡혈귀적 인물로 보고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로웨나를 천착하지 않아 작품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로웨나야말로 「라이지아」를 흡혈귀 이야기로 읽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안한다. 그녀가 ‘영국 귀족’이라는 설정은 이 작품이 독립 전후부터 꾸준히 전개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포의 의도를 일차적으로 표상한다. 그 행보는 양가적인 것으로, 한편으로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서 후자의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 영국과 같은 제국으로 거듭나려는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미국이 영국과 형성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이 상호의존성을 희생자의 피에 지속적으로 의지해야만 불멸을 담보받을 수 있는 흡혈귀의 그것에 비유하여, 로웨나를 포함한 포의 인물들 간의 ‘삼각관계’를 통해 재현되는 양상을 추적한다. 특히 화자와 로웨나를 각각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상징으로 상징하고 그들이 라이지아가 대변하는 서구 제국주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벌이는 대결 구도를 조명해, 화자와 라이지아가 로웨나를 흡혈해 둘만의 영생을

연한다는 로렌스적 해석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포가 19세기 미국이 맹목적으로 믿고 추구하던 제국주의적 이념의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폭로하기 위해 「라이지아」라는 흡혈귀 이야기를 집필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에드거 앨런 포, 「라이지아」, 제국주의, 흡혈귀, “자유의 제국,” D. H. 로렌스, 『미국 고전 문학 연구』

## I.

「라이지아」(“Ligeia,” 1838)는 총 70여 편에 달하는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단편 중에서도 유독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 왔다. 라이지아라는 이름의 요절한 첫 번째 아내가 재혼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화자에게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흔히 요약되는 이 작품은 “포가 영혼의 존속에 대해 쓴 궁극의 위대한 이야기”(Rowe 43)로 칭송되며 포를 대표하는 작품의 선두에 섰다. 물론 「라이지아」는 포가 “영혼의 존속”에 관해 쓴 유일한 또는 마지막 작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궁극의” 대표작이 된 이유는 이 작품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에서 가늠할 수 있다. 학자들에게 「라이지아」는 무엇보다도 “포의 흡혈귀 이야기”(Hallab 79)다. 이 수식어는 D. H. 로렌스(D. H. Lawrence)가 『미국 고전 문학 연구』(*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1923)에서 「라이지아」를 두고 무언가를 간절히 “욕망하는 의식이란 [. . .] 흡혈귀”(the desirous consciousness [. . .] is vampire, 70)임을 보여주는 포의 “주요 작품”(68)이라 평가한 데서 유래한다. 로렌스에 따르면 이 의식은 작품의 두 주인공인 화자와 라이지아가 공유하고 있다. 화자는 라이지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헤아려, 그녀의 전부를 인식하게 될 때까지, 그녀를 분석하고자”(69) 하기에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이지아는 역으로 “그의 의식에 의해 파헤쳐지고,

[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71)기 때문에 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둘은 라이지아의 영혼이 두 번째 부인인 로웨나(Rowena)의 몸을 취해 부활하도록 공조하고, 그렇게 “두 명의 흡혈귀”(74)로 거듭난다. 로렌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에게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스럽지 말 것을 종용”(73)한다. 그러한 자아의 의식은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어야 하고, [세상이 나와] 하나여야 한다고 우기는 인간의 고통”(67, 원문 강조)을 답습하는, 그래서 독립 이후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19세기 미국인이려면 반드시 “와해시키고 탈피해야 할[,] 낡은 의식”(65)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렌스는 이 이야기가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인다. 화자와 라이지아가 “낡은 의식”을 떨쳐내지 못하고 되레 그에 사로잡힌 채 불멸성을 얻게 하여, 동시대 미국인들이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실패할 것임을 경고”(81)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로렌스에게 이는 당연하다. 포는 다른 18~19세기 미국 작가들과는 달리 “인디언이나 자연[과 같은 외적 현실]에 연루되기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과정에만 온전히 몰두”(65)했다. 로렌스의 포는 “인간 영혼의 낱골덩과 저장고[가 있는] 무시무시한 지하 통로를 누비는 탐험가”로서 무언가에 대한 “애착, [그] 강렬한 울림과 고조된 의식”(81)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작가였다. 그리고 포의 흡혈귀적 인물들은 이 기민함의 표식이다.

로렌스의 해석은 여러 면에서 획기적이다. 흡혈귀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 작품에서 그 상징적인 양태를 집어낸 면이나, 얼핏 화자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소유욕에 좌지우지되는 듯한 라이지아에게서 화자 못지않은 능동성을 짚어낸 면 등에서 그렇다. 그런데 「라이지아」에는 이 해석이 다루지 않은, 하지만 못지않게 획기적인, 흡혈귀가 한 명 더 있다. 바로 로웨나다. 로렌스는 로웨나를 화자와 라이지아의 도구적 희생양으로만 간주한다. 화자에게는 “라이지아를 향한 그의 뜻이 좌절된 데에 복수를 자행할 대상인 살아있는 육체”일 뿐이고, 라이지아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지식을 [. . .] 남편과 함께 성취하기 위해”(75) 필요한 생명 연장의 자원일 뿐이다. 본 논문은 로웨나의 이러한 희생자성이야말로 포의 흡혈귀가 영속에 대해 갖는 첨예한 의식 또는 끝없는 집착을 극명하게 나타낸다고 제안한다. 로렌스의 흡혈귀는 인간을 포식하

는 괴물로 인간과 대척점에 서 있는데, 그건 문학적으로 재현되어 온 흡혈귀의 모습 중 일부에 불과하다. 흡혈귀는 이미 18세기 중후반부터 독일과 영국을 위시한 서구의 시와 소설, 희곡 등에 주된 소재로 활용되면서 구체적인 종적 특징을 갖추었다.<sup>1)</sup> 그중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혈액을 근저에서 공급해 줄, 생생한 몸에 의지”해야 하기에 그들의 먹잇감과 대립하기보다는 “공생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Wilson 100)를 맺게 된다는 점은 흡혈귀에 관한 고찰이 일방의 위력보다는 쌍방 이상의 역할을 전제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흡혈귀의 흡혈이 “먹이를 먹는 [ . . . ] 방법이 되거나, 희생자를 흡혈귀로 변모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Prorokova 161)는 또 다른 종적 특징은 「라이지아」 속 인물들을 흡혈귀와 희생자로 이분화할 수 없게 만든다. 흡혈귀에게 물린 사람도 흡혈귀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화자와 라이지아가 흡혈귀라면 그들의 희생자인 로웨나 역시 흡혈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혹은 애초에 로웨나가 흡혈귀였기에 그녀를 흡혈한 화자와 라이지아가 흡혈귀로 변한다는 말도 될 수 있다. 이처럼 로웨나를 흡혈귀의 희생자로 보는 것은 「라이지아」 속 인물 관계를 더 복잡다단하게 재구조하는 작업을 요한다.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그 인과성이 모호한 채 서로 뒤엉켜 있는 이 관계는 화자와 라이지아, 그리고 로웨나가 각각 어떤 흡혈귀성을 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비로소 파악될 수 있다. 그렇게 파악된 관계는 포가 19세기 미국의 시대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 II.

로렌스의 해석이 후대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가 「라이지아」 속 흡혈귀 은유의 남다름을 포의 문학적 남다름의 증거로 삼으면서, 20세기 초 태동한 포의 학문적 재고에 박차가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포는 주로, 그의 오랜 숙적으로 악명 높은 (그렇지만 그 진위는 미궁 속에 머물러 있는) 루퍼스 윌모트 그리스월드(Rufus Wilmot Griswold)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대로, 자신의 “불

건전한 마음, 또는 [. . .] 타고난 ‘병적인 상상력’을 형상”(Griswold 234)하는 인물과 사건으로 가득한 글을 써낸 ‘괴팍한 기인’이었다. 이처럼 포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되던 기이한 상상력이 로렌스에 와서 “파괴적인 사투를 벌이는 인간 영혼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Lawrence 66, 필자 강조)의 원천으로 재해석된 것이다.<sup>2)</sup> 로렌스의 영향은 초기 포 비평 중 하나인 로이 P. 바슬러(Roy P. Basler)의 연구에서부터 확인된다. 바슬러는 지금껏 “포의 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비합리적 심리학에 속하는 학파의 자료와 이론이 대거 적용되었”(363)던 건 잘못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보다는 왜 하필 “비합리적 심리학이 포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읽는 데 연계되는지”(363)에 주목해 포의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로렌스가 「라이지아」의 흡혈귀 은유를 통해 “포가 집착과 광기라는 심리학적 주제를 의도적으로 다루었음”(363)을 밝혔듯이 말이다. 바슬러는 그에 더해 화자가 “의지의 힘을 이용한다면 영적인 사랑을 통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한 과대망상”(367)을 겪는 ‘환자’라고 지적한다. 라이지아를 되살리기 위해 로웨나를 제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 그의 망상 속에서 “라이지아의 혼령이, 흡혈귀처럼, 열병에 걸려 정신이 나간 로웨나의 몸을 포식해”(369) 부활하는 듯 재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흡혈귀 은유는 뒤틀린 공상의 산물에서 문체적 인간의 내면을 외양화한 수사학적 전략이 된다.

제임스 W. 가가노(James W. Gargano)와 제임스 B. 트윗첼(James B. Twitchell)은 바슬러의 논의 속 문학적 함의에 천착해 「라이지아」의 흡혈귀성을 낭만주의 영문학의 관습으로 풀어내어 포의 작가적 입지를 다지려 했다. 먼저 가가노는 「라이지아」의 화자를 존 키츠(John Keats)의 「라미아」(“Lamia”)와 「무정한 미녀」(“La Belle Dame sans Merci”) 속 남성 인물에 빗대어, 그가 “고매함을 환기할 수 없게 된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338) “자신의 열정과 상상력의 최정점에서만 살아가려는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자”(339)라 규정한다. 포의 화자에게 라이지아는 그가 “꿈꾸는 관념적 ‘천국’의 낭만적인 형태”이며, “라미아나 무정한 미녀와 누린 짧은 행복이 키츠의 주인공들을 부적절함과 사악함이 가득한 광란에 빠뜨리”(339)듯이 주변의 “모든 것을 남김 없이 빨아들이는 사적인 환상 속으로 [그를] 완전히 침잠”(341)시킨다. 트윗첼은 포가

「라이지아」 뿐만 아니라 「베레니체」 (“Berenice”)나 「모렐라」 (“Morella”), 「어셔가의 몰락」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등 주인공의 연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즐겨 쓰면서 흡혈귀라는 “신화적인 기표를 [과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비유로 사용”(4)했다고 본다. 이 중에서도 「라이지아」가 두드러지는데, 이 이야기 속 화자는 라이지아를 향한 “편집증”에 시달리는 걸 넘어 그녀에게 심각하게 “중독”(127)되어 있다. 피 없이 살 수 없는 흡혈귀처럼 라이지아 없는 삶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녀를 “가족도 없고, 그림자처럼 서성이며, 대리석같이 차가운 손에, 창백한 안색, 번뜩이는 치아 등을 가진—흡혈귀의 모든 신체적인 특징들을 다 갖춘”(127) 존재로 묘사해 불후의 한 쌍이 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란 전부 흡혈귀와 같은 “일종의 중독자”이며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능력을 훼손”(127)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극화해, 포의 19세기적 작가성을 증명한다.

포의 흡혈귀 은유에 부여된 영문학적 의의는 아스파시아 스테파노(Aspasia Stephanou)에 이르러 ‘19세기 미국’ 문학적 의의로 세분화된다. 스테파노는 라이지아의 “아름답게 쇠약해지는 몸”(37)에서 당대 미국 사회에 큰 공포를 조장했던 전염병인 결핵과의 연결 고리를 발견한다. 결핵은 “체액을 전부 손실함에 따라 몸이 말라가고 소진되어 버리는” 증상 때문에 종종 “흡혈귀의 짓”(36)으로 여겨졌다. 이는 라이지아가 서서히 죽어가는 중에도 오로지 ‘말라간다’라고만 얘기되는 사실과 상응한다. 라이지아의 추하지 않게 약해지는 몸은 “썩어가는 육체의 물질성을 가리는”(37) 역할을 하는데, 포는 이를 통해 “이상주의와 물질주의 사이의 긴장”(38)을 드러내고자 한다.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었던 또는 부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든 그 매력을 잃지 않는 흡혈귀로서의 라이지아는, 포가 19세기 미국의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창조한 인물이다. 당시 유세를 떨치던 초월주의적 가치관과는 달리 실제 미국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면서 그로부터 양산된 사회적 약자와 타자를 또다시 양분 삼아 그 행로를 이어갔는데, 이런 흡혈적 상황이 공적 담론에서 누락되거나 묵과되고 있음을 포가 ‘미국’ 작가로서 꼬집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라이지아」의 비평사는 후대 학자들이 로렌스의 해석에 기생하며, 그리고 로렌스의 해석이 그들의 관심에 기생하며, 그 명맥을 이어와 오늘날 “거대한 산업”(Crisman 64)에 준하는 규모와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가 되었다. 그에 따라 로렌스가 간과했던 로웨나의 의의도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문제는, 비평적 경향이 포를 19세기 미국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로웨나가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의 여타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라이지아」에는 구체적인 시간적, 지리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 와중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로웨나의 배경이다. 작품에서 로웨나는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트레메인 출신의 레이디 로웨나 트리베니언”(“Ligeia” 166)으로 소개된다. 트레메인(Tremaine)은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주에 실재하는 마을이고, “레이디”는 “공작, 후작, 또는 백작”과 같은 “상위 계급 귀족의 여식에게 쓰이는 예우상의 경칭”(“Lady”)이다. 요컨대, 로웨나는 영국의 귀족 출신이다. 이에 비해 화자에 대한 정보는, 포의 ‘믿을 수 없는 화자’답게,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라이지아에 관한 정보는 일견 매우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쓸만한 건 없다. “라인강 근처의 크고, 오래되었으며, 허물어져 가는 어떤 도시에서 그녀를 처음 그리고 가장 자주 만났다”(“Ligeia” 160)는 화자의 회상에서부터 그녀의 외모를 묘사하기 위해 그가 끌어온 인유들—고대 페니키아의 여신 아스다롯이나 델로스섬의 딸들(“Ligeia” 160), 프랜시스 셰리던(Frances Sheridan)의 오리엔탈풍 소설 『페르시아인, 누르자하드의 역사』(*The History of Nourjahad, the Persian*) 속 미지의 계곡에 사는 부족이나 터키의 이슬람교도들이 숭배한 “천녀”(“Ligeia” 161) 등—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화자가 작품의 도입부에서부터 “어떻게, 언제, 또는 정확히 어디서, 라이지아라는 레이디를 알게 되었는지, 영혼을 걸고, 기억나지 않는다”(“Ligeia” 159)고 확인하는 바람에, 그가 그녀에 대해 하는 말은 전부 신빙성을 잃는다. 「라이지아」는 1838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간되던 『아메리칸 뮤지엄』(*American Museum*)이라는 정기 간행물에 실린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인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포는 왜 이 작품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로웨나라는 ‘영국인’의 배경을 가장 구

체적으로 명시했을까?

19세기 미국은 독립 전쟁과 1812년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국가 체계를 갖춰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영국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을 첨예하게 ‘의식’하는 태도가 남아있던 것인데, 흥미롭게도 이 태도는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모방적인 것에 가까웠다. 독립 이후부터 포가 「라이지아」를 집필하던 1830년대 말까지 미국은 총 8번의 정권 교체를 거쳤지만, 그 지향점은 1780년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명명한 “자유의 제국”(the Empire of Liberty)의 실현으로 축약될 수 있을 정도로 한결같았다. 학자들은 보편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표현하는 듯한 이 구문의 참뜻이 “자유”보다는 “제국”에 방점을 둔다고 입을 모은다. “제퍼슨이 인류의 진보를 위한 본보기로 이바지할 **확장주의적**, 평등주의적 공화국을 상상”했으며 그런 공화국은 무엇보다 “나라의 지리적인 **확대**에 기초해야”(Cogliano 183, 175, 필자 강조) 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기실 미국에게 독립 전쟁은 단순히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초가 아니라 독립 국가로서의 기반이 될 영토를 확보하고 넓혀 영국을 위시한 유럽 강대국의 뒤를 잇는 제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디딤대였다. “자유의 제국”은 독립 전쟁 중이던 1780년 당시 버지니아주 지사였던 제퍼슨이 버지니아주 민병대의 중령인 조지 로저스 클라크(George Rogers Clark)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거론되었다. 제퍼슨은 이 편지에서 “디트로이트 요새에 주둔해 있는 영국군 부대를 축소시키고 부수적으로 이리호 지역을 획득하기” 위해 “오하이오 지역 너머의 적진으로 침투하는 작전이 [클라크의] 지휘하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우리 연방이 **대영제국** 황제를 대신해 어디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캐나다 내 **영국**의 속주가 위협하게 팽창하는 상황을 막아줄 방벽을 세우면서 이 자유의 제국에 방대하고 비옥한 영토를 제공해 주어 위협적인 적들을 소중한 우방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을 것”(“Letter,” 필자 강조)이었다. 즉 “자유의 제국”은 미국이 혼자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주적이자 지나긴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단기간에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선 영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닮아가려 해야 이룰 수 있다.



이를 제창한 제퍼슨이 추후 미 국무장관과 부통령을 거쳐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신흥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구실을 했음은, 미국이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다더라도 “제국”에의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독립 이후에도 대영제국에 대한 의식을 견지했음은 19세기 초반의 국가 정책에 잘 나타난다. 미국은 루이지애나 매입,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대 파견, 인디언 이주법 통과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는데, 토머스 벤더(Thomas Bender)에 따르면 이를 관통하는 원칙이 매우 영국 제국주의적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유럽 제국은 합법적인 영토 점유를 위한 나름의 법칙”을 갖고 있었다. 서구 제국주의의 선두 주자였던 포르투갈은 어떤 지역의 “발견 그 자체, 좀 더 정확하게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보고 지배권을 부여”했고, 경쟁국이었던 스페인의 경우 “발화—점유한다는 의례화된 ‘선언’—이면 실질적인 점유를 주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 뒤를 이어 서구 제국주의를 근대화한 영국에게는 소유하려는 지역의 “활용, 그곳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유용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라면”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자가 그곳을 가질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 가장 두드러지는 예가 바로 17세기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화였다. 청교도 분리주의자들과 그 후손들은 “종교적 언어와 신께서 이 세상에 뜻하신 바로 그들의 이주를 정당화”했지만, 그들을 신대륙의 ‘소유인’으로 만들어 준 것은 그곳의 “자원을 키우고, 증대시켜, 개발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세였다(Bender 54).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해도, 아프리카로부터 납치되어 팔려 온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도, 이웃의 다른 나라 식민지 개척자들과 마을의 경계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해도,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그곳을 개척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 기저에 깔린, 무엇이든 내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은 19세기 미국의 영토 확장 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자주 국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양분으로 영국의 제국주의적 정신을 택해 흡수한 것이다.

찰스 퀸스(Charles Quince)가 1846년부터 3년간 “미국이 멕시코와 벌인 전쟁 중에

대륙의 팽창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이 정점에 달했다”(3)고 전하듯이, 학자들은 대체로 멕시코-미국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시발탄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실상은 1838년 미국 탐사 원정대(United States Exploring Expedition)의 발족이 그 효시였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과학적인 탐색을 수행할 원정대”(Beidleman 313)를 특과한 이 사건은, 1940년 미국 철학 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가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정도로 숭상된다. 이 심포지엄에서 당시 미시간 대학의 식물학 교수이자 마타아이 보태니컬 가든스(Matthaei Botanical Gardens)의 총괄 감독이었던 할리 해리스 바틀릿(Harley Harris Bartlett)이 발표한 대로, 원정대의 발족은 “미국에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천하에] 선언”(601)한 것이었다. 미 정부는 원정대의 구성에 유례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원정 계획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가 재임하던 1828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에 의해 국고 지원의 문제 등으로 반려되었다가 1836년 재고를 거쳐 1838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원정에 참여할 인원을 뽑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9명의 과학자를 포함해 거의 500명에 이르는 군인과 민간인을 태울 6대의 선박으로 이루어진 소함대”(Walker)가 꾸려졌다. 1838년 8월 버지니아주 햄프턴 로스에서 출항해 1842년 6월 뉴욕항으로 복귀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정대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하와이, 뉴질랜드, 피지, 통가, 사모아, 타히티, 투아모투 제도와 기타 지역”을 돌며 “수천 점의 동물 표본, 5만 점의 식물 표본, 수천 점의 조개껍데기, 산호, 화석, 그리고 지리학적 표본, 심지어는 다양한 장소에서 채취한 해수”와 “대원들이 ‘골동품’이라 불렀던 2천5백 점의 민족학적이고 고고학적인 표본”(Walsh)까지 수집해 왔다. 이 수집품은 1857년부터 스미스소니언 국립 자연사 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미국의 과학사와 지성사를 두루 대표하는 표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탐사 원정을 둘러싼 정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취지가 그다지 ‘과학적’이거나 ‘지성적’이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일단 총 500여 명의 원정대원 중

과학자가 단 9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군인이었다는 사실부터 ‘군사적’ 취지의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원정의 배후에는 영국을 향한 끝나지 않은 견제가 있었다. 원정 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건 1828년이었지만, 원정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1820년대 초반이었다. 미국은 1812년 전쟁 이후에도 채 미국 영토로 편입되지 않은 북아메리카의 북서부 지역을 두고 영국과 수년간 교섭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중 컬럼비아강 유역은,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대가 1805년에 도달해 1년간 지리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져 아직 관광이 흔하지 않았음에도 “30명 이상의 육로 여행자들을 바로 끌어모으”는 등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북아메리카 육지 탐험[이 개진된 곳]으로 각광”(Lang)받았기에, 교섭의 핵심지로 떠올랐다. 1821년 컬럼비아강 유역에 미군을 주둔시켜 언제든 바로 국토로 영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조지아주 하원 의원 존 플로이드(John Floyd)에 의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가 1823년 말 연례 국정연설에서 유럽과 미국 간의 상호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외교 방침인 먼로주의를 발표하면서 “컬럼비아강 어귀와 그에 면한 해안지대를 탐색할 [...] 군함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줄 것”(Walker 재인용)을 공식 요청하도록 이끌었다. 그때부터 컬럼비아강 유역을 포함한 오리건 준주는 “영국이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패권을 쥌 것에 대한 의회의 염려”(Walker) 속에 대영 교섭의 요체가 된다. 그리고 1838년 미 해군 대령 찰스 윌크스(Charles Wilkes)가 이끄는 원정대가 오리건 준주를 비롯해 국내외 각지에 산재한 미발견 지역의 탐색을 명받고 출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윌크스 원정대(Wilkes Expedition)라는 별칭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된 미국 탐사 원정대의 출발이다. 원정대는 1841년 컬럼비아강에 도달하고, 같은 해 윌크스는 미국 최초로 오리건 준주의 지리적, 과학적 유용성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한다. 이 지도는 원정대의 다른 방문지에 대한 지도들과 함께 총 5권으로 이루어진 『미국 탐사 원정대 이야기』(*Narrative of the United States Exploring Expedition. During the Years, 1839, 1840, 1841, 1842*)에 수록되어 1845년 세상에 공개된다. 영국의 제국주의적 점유 양식을 모방한 이 일련의 행위는, 원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더불어, 1846년 미국과 영국령 캐나다 사이에 국경

을 세우는 데 합의하는 오리건 조약이 성사되고 1859년 오리건 준주를 미연방의 33번째 주로 합병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데 기여한다. 요컨대, 미국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증명한다는 원정의 진의는 미국의 자립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 대영제국을 위시해 “세계 과학의 발전을 주도해 온 유럽 강대국들과 동반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Bartlett 601) 그들을 대체할 차세대 제국으로 부상하려는 것이었다.

미국 탐사 원정을 둘러싼 정황이 포에게 끼친 영향은 주로 「병 속에서 발견된 원고」 (“MS. Found in a Bottle”)나 『아서 고든 핼의 모험』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 「소용돌이 속으로」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처럼 바다를 무대 삼은 이야기와 연계되어 거론된다. 이중 『아서 고든 핼의 모험』은 원정의 행선지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활발해진 “남극 대륙에 대한 논의를 기회 삼아 돈을 벌고자 한” 포가 일부러 같은 곳을 배경으로 잡고 써서 “윌크스 원정대의 출발과 긴밀히 겹치는 시기에 출판”(Kennedy 41)한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포가 윌크스 원정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그 관심이 극지방에만 쏠려 있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원정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있었다. 포는 1835년부터 2년여간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 (*Southern Literary Messenger*)라는 정기 간행물의 편집자로 일했는데, 그때 미국 탐험 원정대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열성적인 지지자이자 실질적인 기획자로 활약해 이름을 떨친 제레미아 N. 레이놀즈(Jeremiah N. Reynolds)라는 탐험가의 글에 대한 서평을 두어 편 썼다. 특히 레이놀즈가 1836년 미 하원에서 발표했던 「태평양과 남양으로 조사와 탐사를 위한 원정대를 보내는 건에 관한 연설」 (“Address on the Subject of a Surveying and Exploring Expedition to the Pacific Ocean and South Seas”)의 단행본에 관해 쓴 서평에는 포가 원정의 제국주의적 함의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남해 원정대」 (“South-Sea Expedition”)라는 제목의 이 서평은 얼핏 레이놀즈의 연설문이 원정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으며 그에 동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듯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서평을 읽는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의 독자들을 비롯한 “미합중국 국민이 그와 같은 원정대에 거는 기대가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할 것”(“Expedition” 71)임을 포가 참작한 것

이다.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다른 포의 생각은 서평 곳곳에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어조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제국주의적 원리를 인습하고 있음을 비꼬면서, 표출된다.

서평에서 포는 원정대가 방문할 “구역이 [. . .] 우리 해군 선박이 다다랐던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덜 알려져 있고 더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Expedition” 68)음에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건 틀림없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그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섬, 산호초 그리고 모래톱이 풍부해—이들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는 건 신중해야 할 터”—“제일 처음 발견하는 나라가 그 대부분의 혜택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혜택”이란, “상아, 백단, 해삼, 깃털, 깃대, 바다표범 기름, 돌고래 기름, 그리고 바다코끼리 기름 등의 무역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그 근방에서 난파됐다고 보도된 우리 선박의 선원들을, 최소한 그 일부라도, 예속과 절망의 삶에서 구해내게 될지도 모른다”(“Expedition” 69)는 것이다. “혜택”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무역품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열거되어 있다든지 조난된 선원들이 무조건 그곳에서 야만적인 취급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게 그럴 “지도 모른다”(may be)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의 비판을 내포한다. 미국이 아직 원정 시작 전부터 미리 대상 지역의 잠재력을 상업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두루 가늠하고 정당화하여 ‘내 것’으로 못 박아 두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영국 제국주의적으로 설레발치고 있다는 포의 비판은 서평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더욱 베틀어진다. 이런저런 혜택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이 원정이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구상의 무역국들을 진두지휘하는 우리의 입지와 지위” 그리고 “국력에 걸맞은”(“Expedition” 70, 71) 사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무후무한 국가인 만큼 “다른 나라가 시도해 본 수준이 전혀 아닌”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데, “우리의 그러한 국민성 [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 충실해지려면, 이 위대한 공화국이 파견하는 첫 번째 원정대는 어떤 부문에서도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그제 “원정을 허술하게 기획하는 부문이든지, 다른 나라가 시도했던 바를 너무 있는 그대로 가져와 우리의 모델로 차용하는 부문이든지” 말이다. 원정 기획의 결함을 걱정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따라 할 것을 우려하는 건 문맥상 다소 뜬금없다. 하지만 포는 이

뜬금없는 우려에 계속 방점을 두고 서평을 이어간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성공적”인데, “다른 나라들이 선보인 정신은 전적으로 모방할 만하나, 그들의 기술은 그렇지 않”으니, “저 원양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무얼 가졌는지, 그걸 확보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포가 말하는 “우리 방식”은, 그가 원정의 과정을 “기술”적인 측면에만 주목해 요약하는 동시에 원정의 “정신”은 타국의 것을 모방해도 좋다고 인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마치 남들이 해놓은 일을 방법만 다르게 따라 하는 게 지금껏 우리가 취해온 ‘미국적’ 방식이라는 듯이 읽힌다. ‘미국적’의 그다지 미국적이지 않은 속뜻은, 포가 미국 탐사 원정대를 “제퍼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루이스와 클라크”의 원정대에 빗대고 레이놀즈의 연설문을 “우리의 독립 선언문 바로 다음에 올, 그리고 곧 그에 비견할”(“Expedition” 71) 중요 문서로 꼽으면서 명확해진다. 그냥 “루이스와 클라크”가 아니라 “제퍼슨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탐험가들이라 부르는 것이나 레이놀즈의 연설문을 역시 제퍼슨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던 독립 선언문에 비교하는 것은, 미국이 예나 지금이나 영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투사된 “자유의 제국”을 열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 나라가 또 다른 독립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열광하는 미국 탐사 원정대의 발족은, 미국이 벗어나고자 했고 벗어났다고 믿는 영국 제국주의의 명령이 미국의 절대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새삼 일깨워져 신흥 국가의 혈기를 흡수해 살아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III.

엄밀히 말해 「라이지아」에는 『아서 고든 핼의 모험』과 같은 포의 해양 소설에서처럼 미국 탐사 원정과 직결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도 『아서 고든 핼의 모험』과 함께 1838년에 출판되었고, 화자가 “사람보다는 악마에게 더 어

울릴 만한 증오심을 품고 싫어”(“Ligeia” 169)하는 인물로 ‘영국인’을 등장시키고 있기에, 포가 원정을 둘러싼 상황에서 포착한 미국과 영국 간의 얽히고설킨 관계에 비추어 읽을 수 있다.<sup>3)</sup> 물론 화자의 개인사는 불확실하지만, 그가 미국인 독자를 겨냥한 이야기 속 ‘나’로서 영국인인 로웨나와 확고하게 대척되는 지점에 서 있는 한 19세기 미국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기실 화자의 미국성은 로웨나에 대한 그의 “증오”에서 드러나는 듯하다. 그 감정은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Ligeia” 168)인데도 그의 재산을 노려 그와 결혼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다. 화자는 로웨나와의 신혼방이 자신의 “변태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꾸며졌다고 하면서, “황금에 목이 말라, 그렇게 아끼는 처자이자 딸더러, **이렇게** 장식된 방의 문턱을 넘어 가라고 부추긴, 신부의 그 오만한 가족은 대체 영혼을 어디에 둔 건지”(“Ligeia” 166, 167, 원문 강조)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린다. 화자는 단순히 “레이디” 로웨나와 그녀의 가족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속적인 물욕을 좇는 위선적인 귀족임을 비웃는 게 아니다. 그 진의는 로웨나가 속한 트리베니언 가문이 “트레메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참작해야 온전히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레메인은 영국 콘월주에 있다. 트레메인 자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지만, 콘월주는 그렇지 않다. 아서 왕이 탄생한 틴태즐 성(Tintagel Castle)의 소재지로 유명해 “빅토리안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Passey 130) 곳이다. 실로 아서 왕 전설은 19세기 영국 전반에 걸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의 『국왕 목가』(*Idylls of the King*)와 같은 작품에서처럼 아서 왕을 “제국주의적으로 정복을 수행한 주체자”(Hughes 60)로 재연하는 게 대세였다. 분열되어 있던 브리튼을 통일하고 색슨족의 침략을 막은 주역으로 회자되는 아서 왕에게서 대영제국의 뿌리와 당위성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서 왕 전설이 곳곳에 스며있는 콘월주에 트리베니언 가문을 위치시킨 것은, 로웨나라는 인물에 영국 제국주의의 역사를 투영하려 한 포의 의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런 로웨나를 비웃는 화자의 태도는 대단히 미국적이다. 트레메인처럼 외딴 시골 마을의 쇠락한 귀족 가문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19세기 영국이, 오래전 이야기에 불과한 아서 왕의 업적을 되살려 자신의 제국성을 굳건히 하려

는 것처럼, 한때 식민지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독립 국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국을 계속 착취의 대상으로 두고 영속하려 한다는 비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화자도 로웨나와 다를 바가 없다. 화자가 로웨나와의 신혼방을 취향껏 꾸밀 수 있는 건, 본인도 “속세에서 부라 일컫는 것을 부족함 없”이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는 “라이지아가 [그]에게 더 많은 부를, 대개의 인간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다준”(“Ligeia” 166) 덕분이다. 그가 아무리 라이지아를 못 잊고 그녀의 지성과 미모를 찬양한들 그녀의 부유함이 없었더라도 그랬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바로 그 부유함 때문에 라이지아를 계속 갈망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앞서 열거했던 대로 화자가 그녀의 지식과 외모를 칭송하기 위해 쏟아부은 인유들이 대부분 고대 페니키아,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터키 등 신화와 설화 속 지역 또는 그와 결부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은 고대 제국들의 본거지로, “16세기부터 구축되어, 18세기 들어 눈에 띄게 강화된, 유럽이라는 개념이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린 “오스만 제국” 등을 “반드시 승계해야 할 조상들”(Marin 11)로 상정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탈식민주의적 비평이 라이지아에게 부여했던 “서구인들을 위해 축진된 열등한 동양의 타자라는 이미지”(Pangborn 36)를 불식시키고, 그녀를 유럽 열강들이 대대로 갈구해 온 제국성의 모태이자 범례로 재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라이지아의 결혼으로부터 “더 많은 부”를 얻는 설정은 이미 자주적으로 변영해 온 미국이 유구한 제국주의의 계보를 계승한다면 더욱더 변영하게 될 것이라는 당시의 믿음과 상응한다. 화자가 생전의 라이지아에게서 “엄청나게 나이 든 사람의 시선”에서나 엿보이는 바닥 모를 깊이를 느꼈다든지, “그녀의 무한한 우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이 같은 신념을 갖고서, 그녀의 안내를 따랐”(“Ligeia” 162, 163)다는 점은 화자와 라이지아 사이에 동경을 바탕으로 한 위계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동경은 본질적으로 모방의 욕구를 품고 있어, 화자는 라이지아와 ‘함께’ 살기보다는 그녀 ‘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는 라이지아가 병에 걸리자 곧바로 “그녀가 죽어야만 한다”(“Ligeia” 164)고 결론했고 그녀의 치유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죽게 놔둔다. 그리고 라이지아의 풍요로움을 흡수해 한순간에 롯데 높은 정통 귀족인 로웨



나와의 혼인을 성사시킬 만큼의 눈부신 '재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신이 라이지아의 상속자임을 기정사실로 만든다. (그가 라이지아 덕분에 부자가 되었음을 '서슴지 않고' 고백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요컨대, 화자는 로웨나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인 존속의 열망을 품고 라이지아에 기생하는 흡혈귀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화자는 왜 로웨나와 '재혼'하는가? 마리타 나달(Marita Nadal)은 “로웨나의 육신을 [라이지아]의 대체물로 쓰기”(184) 위한 거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영혼을 후자의 육신에 깃들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목적이려면 화자가 로웨나와 재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녀를 연인으로만 두더라도 얼마든지 라이지아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 그보다는, 화자가 라이지아에게 원하는 게 분명했고 그를 얻기 위해 그녀와 혼인했던 것처럼, 그가 로웨나에게 원하는 것도 분명하기에 재혼을 감행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라이지아를 잃은 후의 화자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가 꽤나 고의적으로 로웨나와의 재혼을 '추진'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녀가 죽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라이지아의 사망을 밝힌 뒤, 화자는 그가 “살던 곳의 고독한 황량함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단 “몇 달간 지루하고 정처 없이 방황한 끝에” 영국에 있는 “수도원을 사들이고, 수리하여” 정착한다. 그리고 바로 신혼방을 차리는 일에 착수해 로웨나와 재혼한다. 로웨나를 만나고 난 뒤에 신혼방을 차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라이지아를 숭배하다시피 한 사람치고는 다소 신속한—일 년도 채 지나기 전에 벌어진—행보다. 더 흥미로운 건 화자가 수도원에 정착하는 과정인데, 그곳은,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름다운 영국에서 가장 황폐하고 가장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이자 “거의 야만적이기까지 한 면모를 갖춘 영토”(“Ligeia” 166)에 위치해 있다. “황폐하고” “야만적”인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걸로 봐서 로웨나의 고향인 트레메인이 아닌, 그와 비슷하게 또는 그보다 더 외딴 듯한 지역에 있다. 화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곳에서 그 쓸모를 먼저 알아채고 개발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영국 제국주의적 원리를 그대로 복기하고 있다. 이 모습은, 화자가 미국을 의인화하는 한, 영국이 미국에 행했던 제국주의적 방식을 미국이 역으로 이용하려는 양상을 연상시킨다. 그 양상의 완성은 신혼방의 내부에 있다. 그곳은 “금

줄”(“Ligeia” 167)과 “황금 촛대,” “너무나도 찬란한 금빛의 천”(“Ligeia” 168)으로 제작된 태피스트리, 양탄자, 의자의 덮개, 침대의 차양, 커튼 등 그가 라이지아로부터 빨아내어 로웨나를 피기 위해 늘어놓은 각종 ‘금’ 제품으로 채워져 있어, 그가 작정하고 로웨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려 했음을 보여준다. 즉 화자는 라이지아의 고대 제국주의적 위엄을 이용해 서구 제국주의 사회에서 영국이 “오만하게” 차지해 온 위상을 빼앗고자 로웨나와 재혼한다. 로웨나가 재혼 두 달 만에, 라이지아처럼,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Ligeia” 169) 시름시름 죽어가는 전개는 마치 “연쇄 아내 살인범”(Watanabe 110)인 양 주도면밀하게 짜인 화자의 계획이 곧 실현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화자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다. 제국주의가 흡혈귀의 생리에 따라 작동하는 한 화자가 흡혈한 로웨나 그리고 라이지아는 또 다른 흡혈귀가 되어 무덤에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는 「라이지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독되는 두 장면을 다시 읽음으로써 명확해진다. 하나는 로웨나가 라이지아 또는 화자에 의해 독살된다고 의심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지아가 로웨나의 몸을 통해 부활한다고 간주되는 결말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로웨나가 병석에 있는 동안 화자로부터 “마치 방안의 대기 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샘으로부터 솟아난 듯, 선명한 붉은색의 액체 서너 방울이 떨어진” 포도주잔을 받아 마신 직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Ligeia” 170)되어 사망에 이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라이지아가 로웨나를 독살했거나 화자 ‘본인이’ 그랬을 것”(Carter 53)을 암시해 로웨나의 철저한 도구성을 뒷받침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라이지아」가 포의 대표적인 흡혈귀 이야기인 이상 “선명한 붉은색의 액체”는 독약보다는 피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그럼 누구의 피인가? 그 대답은 또 다른 장면인 「라이지아」의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화자는 로웨나의 몸이 사후에도 여러 번 꿈틀대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다가, 조금씩 이 시신이 “진짜로 로웨나이기는 한 건지”(“Ligeia” 172, 원문 강조) 의심하기 시작한다. 입이며 볼, 턱은 로웨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녀가 아픈 뒤로 키가 커진 건가” 싶게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갑자기 “형용할 수 없이 미친 생각에 사로잡힌” 화자는 “한달음에 [. . .]

그녀의 발치로 다가간다.” 시인은 “[그]의 손길로부터 몸을 움츠리고, 창백한 수의에 감싸진 그녀의 머리에서 [. . .] 길고 형클어진 풍성한 머리채가 흘러 내려온다.” 그 머리채는 로웨나의 금발이 아니라 “**한밤중의 까마귀 날개보다도 더 검은**” 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시인의 눈이 떠지자 화자는 “여기, 적어도, 결코—이 눈이 내가 잃었던 사랑의—그 레이디의—레이디 라이지아의 저 강렬하고, 검고, 야생적인 눈임을 결코 알아보지 못하지는 않지!”(“Ligeia” 173, 원문 강조)라 외치고,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마침내 로웨나와 라이지아의 완벽한 교체가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로웨나는 사라지고 라이지아가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반응은 살아 돌아온 게 온전히 라이지아라고 확신할 수 없게 한다. 우선 화자가 라이지아라고 알아보는 신체 부분이 키와 머리채, 그리고 눈뿐이다. 입과 볼, 턱은 로웨나의 것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되살아난 시체는 라이지아 ‘뿐만 아니라’ 로웨나의 신체적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에 더해, 화자가 이 시인을 부르는 호칭도 주목해야 한다. “그 레이디의—레이디 라이지아의 눈”이라 외치는데, 작품에서 “레이디”로 불리는 인물은 거의 로웨나다. 라이지아의 경우, 작품을 통틀어 단 한 번, 앞서 인용했던 대로 도입부에서 화자가 “어떻게, 언제, 또는 정확히 어디서, **라이지아라는 레이디**를 알게 되었는지, 영혼을 걸고, 기억나지 않는다”(필자 강조)고 말할 때만 그렇게 불린다. 이 도입부의 문장은 「라이지아」의 서사 구조상 라이지아 및 로웨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종결된 후 화자가 그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발화된다. 그 말인즉슨, 라이지아는 원래는—고대에는 그런 직위가 없었으므로—“레이디”가 아니었는데 로웨나와 함께 부활하면서 “레이디”가 된다. 로웨나는 라이지아의 영혼에 함몰된 게 아니다. 라이지아를 흡혈했던 화자에게 흡혈 당하면서 얻은 부활의 힘을, 영생을 향한 로렌스적인 의식을, 제국주의의 정수를 빨아들여, 라이지아와 기묘하게 결합된 형상으로 환생한다. 화자는 라이지아와 로웨나 모두를 흡혈해 궁극의 제국이 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다.

## IV.

로웨나와 라이지아 모두 제국주의적 인물이기에 화자에게 흡혈 되기 전부터 이미 흡혈귀적 존재였을 것임을 감안하면, 위의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지 셋 중 가장 나중에 제국주의적 힘겨루기의 장에 참여해 그 먹고 먹히는 흡혈귀적 생태를 이해하지 못한 화자만이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도 화자가 작품 말미에서 라이지만큼은 분간한 게 아닌지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흐른 뒤”(“Ligeia” 159)인 작품의 도입부에서 여전히 라이지아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만 되뇌는 그의 모습은, 그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포는 화자의 모습이 곧 동시대 미국인의 모습임을 잘 알고 있었다. 「라이지아」가 출판된 지 일 년 후인 1839년 필립 펜들턴 쿡(Philip Pendleton Cooke)이라는 (공교롭게도 제퍼슨의 고향이자 정치적 무대 중 하나였던) 버지니아주 출신의 한 시인이 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야기를 읽어 보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레이디 라이지아가—방황하는 영적 존재일 뿐인데—로웨나의 몸이 재생되는 와중에 [. . .] 갑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존재인 라이지아로 변할 수 있는지”(Basler 370 재인용, 원문 강조) 의문을 제기하며, 죽은 로웨나는 일시적으로만 라이지아로 보였다가 종국에는 죽은 로웨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대한 답장에 포는 자신이 “화자의 입장에서, 라이지아가 앞에 서 있음을 불쑥 어설피게 인지”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신체적 변화가 서서히 사라지도록 해서—라이지아가 결국에는 로웨나로 문히게 했어야”(Basler 370 재인용) 했다고 적어, 쿡의 의문에 동의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포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라이지아」를 재출판하면서도 결론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어설피른” 제국주의적 욕망이 불러올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폭로하기 위해 화자가 라이지아를 “어설피게 인지”할 뿐 로웨나와의 상호 기생적이고 상호 흡혈적인 동반 환생을 예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영원히 불확실성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다. 쿡의 편지를 통해 온 나라가 라이지아를

계승할 적법자는 자신이라고 믿는 화자에 동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이야기가 원래의 의도를 잃지 않도록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더더욱 강건해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노선은 이후 전 세계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흡혈의 대상으로 삼으며 뺏어나가 21세기적 제국주의를 이끄는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제는 포가 보존해 둔, 오래되었지만 전과 다름없이 생생한 비판의 기운을 뺏어내는, 흡혈귀 이야기에 눈을 돌려 이 끝나지 않을 듯한 확장과 확대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 Notes

- 1) 최초의 흡혈귀 '영문학' 작품은 존 허먼 메리베일(John Herman Merivale)의 1807년 시 「페스트의 시체들」("The Dead Men of Pest")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초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흡혈귀 영문학 작품은 존 윌리엄 폴리도리(John William Polidori)가 1819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흡혈귀」("The Vampyre")다. 익명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폴리도리를 주치의로 고용했던 바이런(Lord Byron)의 작품으로 잘못 소개되어) 출판된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며 19세기 내내 흡혈귀 문학이 꾸준히 생산되고 소비되는 장을 마련했다. 물론 '서구' 흡혈귀 문학은 더 이전에 등장하였는데, 1748년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오센펠더(Heinrich August Ossenfelder)가 발표한 「흡혈귀」("Der Vampir")를 필두로 독일의 슈트롬 운트 드랑(Sturm und Drang) 시기에 쓰인 일련의 시들—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비르거(Gottfried August Bürger)의 「레노레」("Lenore")와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코린트의 신부」("Die Braut von Korinth") 등—이 그 기원으로 여겨진다. 흡혈귀 자체에 대한 각종 전설은 기원전 문명의 신화나 설화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로렌스가 흡혈귀를 활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의 참신함이지 소재 자체의 그것은 아니다. 흡혈귀 영문학의 전통은 이 논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주제라 차후 다른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2) 잘 알려진 대로, 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1850년대부터 그의 작품에 관심을 두었던 프랑스의 시인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가 그를 시대에 앞서 "새로움에 대한 감각을 창출"(Blood 1 재인용)한 문인으로 극찬하면서 조금씩 중화되기 시작해, 1918년에 이르러서는 대다수가 "이제 에드거 앨런 포의 천재성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흐리던 사적인 안개가 걷힌 지 오래"(Baldwin 210)라는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은 로렌스가 이끌었다.
- 3) 「프시케 제노비아」("The Psyche Zenobia")도 같은 해에 출판되었고 『블랙우드 매거진』(Blackwood's Magazine)이라는 영국의 실제 정기 간행물을 둘러싼 상황을 담고 있으나, 내용상 본고의 논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한다.

## 인용문헌

- Baldwin, Summerfield. "The Aesthetic Theory of Edgar Poe." *Sewanee Review*, vol. 26, no. 2, 1918, pp. 210-21.
- Bartlett, Harley Harris. "The Reports of the Wilkes Expedition, and the Work of the Specialists in Scienc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Centenary Celebration of the Wilkes Exploring Expedition of the United States Navy, 1838-1842, and Symposium on American Polar Exploration, vol. 82, no. 5, 1940, pp. 601-705.
- Basler, Roy P. "The Interpretation of 'Ligeia'." *College English*, vol. 5, no. 7, 1944, pp. 363-72.
- Beidleman, Richard G. "The 1820 Long Expedition." *American Zoologist*, vol. 26, no. 2, 1986, pp. 307-13.
- Bender, Thomas. "The American Way of Empire." *World Policy Journal*, vol. 23, no. 1, 2006, pp. 45-61.
- Blood, Susan. *Baudelaire and the Aesthetics of Bad Faith*. Stanford UP, 1997.
- Cogliano, Francis D. *Emperor of Liberty: Thomas Jefferson's Foreign Policy*. Yale UP, 2014.
- Crisman, William. "Poe's Ligeia and Helen of Troy." *Poe Studies/Dark Romanticism*, vol. 38, 2005, pp. 64-75.
- Gargano, James W. "Poe's 'Ligeia': Dream and Destruction." *College English*, vol. 23, no. 5, 1962, pp. 337-42.
- Griswold, Rufus Wilmot. "Edgar Poe." *Tait's Edinburgh Magazine*, Apr. 1852, pp. 231-34.
- Hallab, Mary Y. *Vampire God: The Allure of the Undead in Western Culture*. State U of New York P, 2009.

- Hughes, Linda K. “‘Come Again, and Thrice as Fair’: Reading Tennyson’s Beginning.” *King Arthur’s Modern Return*, edited by Debra N. Mancoff, Garland Publishing, 1998, pp. 51-64.
- Jefferson, Thomas. “From Thomas Jefferson to George Rogers Clark, 25 December 1780.” *Founders Online*, National Archives, <https://founders.archives.gov/documents/Jefferson/01-04-02-0295>. Accessed 4 Jan. 2024.
- Kennedy, J. Gerald. “Edgar Allan Poe, 1809-1849: A Brief Biography.” *A Historical Guide to Edgar Allan Poe*, edited by J. Gerald Kennedy, Oxford UP, 2001, pp. 19-59.
- “Lady.”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wordplay/whats-a-lady-in-the-british-aristocracy>. Accessed 3 Jan. 2024.
- Lang, William L. “Lewis and Clark Expedition.” *Oregon Encyclopedia*, Portland State University and the Oregon Historical Society, 16 Mar. 2022, [https://www.oregonencyclopedia.org/articles/lewis\\_and\\_clark\\_expedition/#.Y8saaBPMibY](https://www.oregonencyclopedia.org/articles/lewis_and_clark_expedition/#.Y8saaBPMibY). Accessed 7 Jan. 2024.
- Lawrence, D. H.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Viking Press, 1923.
- Marín, Álvaro García. “Our Vampires, (Not) Ourselves: The Greek Undead in the Age of Racialisation.” *Race in the Vampire Narrative*, edited by U. Melissa Anyiwo, Sense Publishers, 2015, pp. 7-22.
- Nadal, Marita. “Trauma and the Uncanny in Edgar Allan Poe’s ‘Ligeia’ and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Edgar Allan Poe Review*, vol. 17, no. 2, 2016, pp. 178-92.
- Pangborn, Matthew. “The Arabian Romance of America in Poe’s ‘Thousand-and-Second Tale of Scheherazade.’” *Poe Studies*, vol. 43, no. 1,

- 2010, pp. 35-57.
- Passey, Joan. *Cornish Gothic, 1830-1913*. U of Wales P, 2023.
- Poe, Edgar Allan.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 *Graham's Magazine*, May 1841, pp. 235-41.
- \_\_\_\_\_. "Ligeia." 1838. *The Selected Writings of Edgar Allan Poe*, edited by Gary Richard Thompson, Norton, 2004, pp. 159-73.
- \_\_\_\_\_. "MS. Found in a Bottle." *Baltimore Saturday Visiter*, 19 Oct. 1833, p. 1.
- \_\_\_\_\_.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 1838. Penguin, 1999.
- \_\_\_\_\_. "South-Sea Expedition." *Southern Literary Messenger*, Jan. 1837, pp. 68-72, <https://www.eapoe.org/works/criticism/slm37r01.htm>. Accessed 10 Jan. 2024.
- Prorokova, Tatiana. "Unmasking the Bite: Pleasure, Sexuality, and Vulnerability in the Vampire Series." *Monsters & Monstrosity in 21st-Century Film and Television*, edited by Cristina Artenie and Ashley Szanter, Universitas Press, 2017, pp. 159-77.
- Quince, Charles. *Resistance to the Spanish-American and Philippine Wars: Anti-Imperialism and the Role of the Press, 1895-1902*. McFarland, 2017.
- Rowe, Stephen. "Poe's Use of Ritual Magic in His Tales of Metempsychosis." *Edgar Allan Poe Review*, vol. 4, no. 2, 2003, pp. 41-51.
- Stephanou, Aspasia. "Lovely Apparitions and Spiritualized Corpses: Consumption, Medical Discourse, and Edgar Allan Poe's Female Vampire." *Edgar Allan Poe Review*, vol. 14, no. 1, 2013, pp. 36-54.
- Tennyson, Alfred. *Idylls of the King*. 1859-85. Penguin, 1989.
- Twitchell, James B. *The Living Dead: A Study of the Vampire in Romantic Literature*. Duke UP, 1981.
- Walker, James. "United States Exploring Expedition (1838-1842)." *Oregon Encyclopedia*, Portland State University and the Oregon Historical Society, 7



Dec. 2023,

[https://www.oregonencyclopedia.org/articles/united\\_states\\_exploring\\_expedition\\_1838\\_1842\\_/](https://www.oregonencyclopedia.org/articles/united_states_exploring_expedition_1838_1842_/). Accessed 6 Jan 2023.

Walsh, Jan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he United States Exploring Expedition Collections.” *Smithsonian Libraries*. Smithsonian Libraries and Archives, 39 Mar. 2004, <https://www.sil.si.edu/DigitalCollections/usexex/learn/Walsh-01.htm>. Accessed 7 Jan. 2024.

Watanabe, Nancy Ann. “Toward a Quantum Theory of Cognitive Affect from Poe to Robotic Helpers: Newton, Arousal, and Covalent Bo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ing Logic: Cognitive Technology for AI Business Analytics*, edited by Cyrus F. Nourani, Apple Academic Press, 2022, pp. 97-148.

Wilkes, Charles. *Narrative of the United States Exploring Expedition. During the Years 1838, 1839, 1840, 1841, 1842*. Lea and Blanchard, 1845. 5 vols.

Wilson, Natalie. *Willful Monstrosity: Gender and Race in 21<sup>st</sup> Century Horror*. McFarland, 2020.

## Abstract

### The Empire Strikes Back: Poe's Critique of US Vampiric Imperialism in "Ligeia"

Ki Yoon Jang  
Sogang University

Edgar Allan Poe's "Ligeia" has been an object of scholarly attention ever since D. H. Lawrence's ground-breaking reading of it as a 'vampire story' in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That attention has one critical blind spot to it, which is the lack of consideration on one of the story's three main characters: Rowena. This paper proposes giving her a chance to be examined as yet another vampiric figure along with the narrator and Ligeia, on account of the symbiotically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vampire and the victim. The paper parallels this relationship with th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he US and England in the 19th century, which revolves around a paradox of the former's attempt to liberate itself from the latter's imperial dominion while aspiring to be a new empire like the latter. The paper posits the narrator and Rowena as the US and England, respectively, and traces their struggle to take over the origin of Western imperialism which is embodied in Ligeia and to perpetuate its legacy.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Ligeia" as a story of Poe's questioning the US's unquestioning pursuit of global imperialism, thereby proving its resonance for our own time.

**Key Words:** Edgar Allan Poe, "Ligeia," imperialism, vampire, "Empire of Liberty,"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논문접수일: 2024.01.24

심사완료일: 2024.02.16

게재확정일: 2024.02.23

이름: 장기윤

소속: 서강대학교 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교수

이메일: kyjang@sogang.ac.kr

